

# 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돌아보며...

김 익 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부장)

‘79년 직장에서 업무 전산화에 대한 책임을 맡았을 때 나는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The 3rd Wave) 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인류사회의 역사적인 변화성에 많은 공감을 한 바 있었다. 즉, 농경사회인 제 1물결의 3000년!, 산업사회인 제 2물결인 300년!, 정보화 사회인 제 3의 물결인 30년!, 삼각파도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제 3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때부터 30년이 다 지나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어떤 사회로 표현할런지는 이 시대의 큰 파도속에서 이리저리 밀리며 부스러지는 포말과 같은 나로서는 정말 모르겠으나, 지금의 사회의 빠른 변화를 보면서 오늘의 사회성 주기는 3년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내가 컴퓨터 세계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 택했던 인

생진로인 군에서 “자의반 타의반”에 밀려 사회로 나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다고 하는 젊은 사람으로서의 의지로, ‘69년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EDPS학과에 입학하고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하던 초기로서,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도입한 회사가 열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여서 컴퓨터분야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공부하는데 대한 자긍심도 컸던 것 같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을 수료하고서도 컴퓨터 분야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없어 일반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79년 몸담고 있는 직장에 전산이 도입됨으로서 업무전산화의 책임을 맡게 되어 약 10년간 내 나름대로 기업경영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킨 “경영정보시스템”(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큰 힘을 쏟았다.

지금 보아도 당시는 성공적이었고, 지금 내가 있지는 않지만 주공의 현재의 성공적인 컴퓨터 환경의 기틀을 만드는 데 공헌한 것으로 자부하여 보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책임을 맡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69년도 컴퓨터 환경이 일천한 시기에 공부한 지식배경만으로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86년 다시 송실

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50세에 가까운 나이로 그간 발전된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더 배우게 되었으나, 지금처럼 격차를 느끼지는 않으면서 당시 나보다도 훨씬 젊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또 컴퓨터 분야에서 근무하는 선의의 경쟁자들과 나란히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진 것 같다.

90년도 또 한 번의 “자의반 타의반”에 밀려 컴퓨터 환경에서 떠나 92년부터 현재의 컴퓨터와 관련이 적다고 생각되는 장애인 재활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재의 삶은 살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컴퓨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다. 지금 나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커지게 되어 처리하는 일도 많고, 필요로 하는 자료도 많고, 자료를 축적해 놓아야 할 일도 많아 사람의 보충만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에 이르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전산화를 거론하게 되었으며 좋은 싫든간에 또 다시 컴퓨터 환경에서 종사하게 되었다.

지금 나의 컴퓨터 지식의 한계는 7년전에 정지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현재의 컴퓨터 환경을 이해하려다 보니, 나의 69년부터 86년 재교육까지의 느꼈던 16년의 차이보다,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컴퓨팅 환경에서 떠나있던 7년간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용어의 개념 자체까지도 파악하기 힘

들고 컴퓨터 세대의 변화가 2-3년이라는 말이 실감나서 지금 2-3세대의 차이를 따라 잡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절실히 느낀다.

이러한 빠른 변화를 보노라니 언뜻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은 지나간 것인가?

시대의 10배 가속성을 빌린다면, “제 4의 물결”은 지금 우리 위에 덮치는 것인가?

그러면 제 4의 물결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 할 것인가?

제 4의 큰 물결위에 있어 너무나 작은 나의 포말 같은 존재는 물결자체에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현재의 3차원 세계에서 4차원의 더 나아가 5차원의 세계까지도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공상(空想)이 꼬리를 문다.